

산림에 인공지능(AI) 기술 입히고 융복합해 디지털화 ‘박차’

- 산림청, 2024년 제3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 개최

산림청(청장 임상섭)은 대전 케이더블유(KW) 컨벤션에서 ‘제3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’를 개최해 2025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(R&D) 투자계획과 2026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10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·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.

내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6.7% 증가한 1,408억 원으로 편성됐다. 이는 농림분야 증가율인 4.7%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기후 위기, 고령화, 생산성 저하 등 임업 현장의 당면한 위기를 혁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구체적으로 △AI 기반 지능형 산사태 현장 대응을 위해 2025~2029년까지 282억 원을, △산림 종자 빅데이터 딥러닝을 통한 디지털 기반 우수종자 생산공급을 위해 2025~2030년까지 113억 원을, △로봇 기술 기반 단기소득임산물 맞춤형 푸드테크 기술개발을 위해 2025~2029년까지 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한편, 산림청은 2026년 산림 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을 융복합 민관협업을 통한 디지털 산림관리로 현장의 생산성 및 경제성을 높이는 실용적 연구 개발에 방점을 두고 투자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대표적 사례로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△인공지능(AI) 기반 대형산불 대응 및 산림병해충 피해 저감 기술개발을, 임업경영 분야에서는 △농림위성 활

용 극대화를 위한 이중 센서 융합기술 개발을,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△대공간 목조건축 핵심 요소 기술개발이 추진되며, 각 연구는 올해 6월 발표한 ‘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’과 정합성을 맞추어 연차별로 추진된다.

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“임업 현장의 생산성과 소득향상 등 당면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첨단과학 기술 접목과 융복합이 필수적이다.”라며, “혁신·도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연구 성과의 현장 확산으로 스마트 산림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관호 (042-481-41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관 (042-481-4137)